

참깨 안정적 수량 확보 '병해충 제때 방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참깨를 재배할 때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하려면 병해충을 제때 방제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4일 강조했다.

참깨 재배기에 비가 자주 내리면 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가물면 해충 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올바른 대응법은 병해충 발생을 빨리 알아 채고 등록된 약제를 올바르게 살포하여 방제하는 것이다.

참깨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은 역병, 시들음병, 잎마름병, 세균점무늬병, 흰가루병 등이다.

역병에 걸리면 땅에 가까운 줄기가 갈색으로 변하고, 잘못된 형태로 보이기도 하며, 지상부가 누렇게 말라간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심하게

역병·시들음병·잎마름·세균점무늬병 등 질병
왕담배나방·노린재류·진딧물류 등 해충 대비
등록된 약제 사용 방법 지켜 알맞은 시기에 뿌려야

발생하며, 특히 물속에 잠겼을 때 주의해야 한다.

시들음병은 새순과 잎끝부터 시들기 시작해 줄기 속이 적갈색으로 변하거나 반쪽을 썩게 한다. 이런 증상은 건조한 땅에서 급격하게 진행된다.

역병과 시들음병은 물관의 변색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땅에 가깝게 닿아 있는 줄기의 색이 어둡고 마르는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병든 줄기의

윗부분을 가위로 잘라 물관이 갈색으로 변했으면 시들음병, 변하지 않았다면 역병으로 볼 수 있다.

잎마름병 증상은 잎뿐만 아니라 줄기, 꼬투리에서도 나타낸다. 잎에서는 불규칙한 갈색 무늬, 줄기에서는 갈색 점선 무늬가 나타난다.

세균점무늬병에 걸리면 잎이 흑갈색으로 변하며 잎 뒷면에 데인 것 같은 무늬(수침상)가 보이기도 한다. 잎맥을 기준으로 병 무늬가 나뉘는데 무

늬가 잎맥을 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흰가루병에 감염되면 잎에 하얀 가루가 덮인 것처럼 보이는데 비람이 잘 통하지 않을 때 더욱 심해진다.

병이 확인되면 현재 참깨에 등록된 약제를 안전한 사용기준에 따라 뿌려 초기에 방제하도록 한다.

참깨에서 발생하는 주요 해충은 왕담배나방, 노린재류, 진딧물류가 있다.

왕담배나방 애벌레는 참깨의 줄기를 갉아 먹어 쉽게 부러지게 하며, 꼬투리를 갉아먹거나 구멍을 내 수량을 떨어뜨린다. 노린재류는 풀색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등이 있다. 꼬투리가 달리는 시기부터 씨알(종실)에 상처를 입혀 수량과 품질을 떨어뜨린다.

진딧물류에는 복숭아혹진딧물, 목화진딧물 등이 있다. 참깨의 잎과 줄기에 달라붙어 즙액을 빨아 먹어 피해를 주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발생이 심해진다. 해충이 발생하면 참깨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 방법을 잘 지켜 알맞은 시기에 뿌린다.

관련 약제 정보는 농사로(<http://www.nongsaro.gov.kr>) 또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psi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박기도 과장은 "한해 참깨 농사의 성공 여부는 병해충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참깨 재배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병해충 약제 등록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정읍산림조합, GREEN WOOD 아카데미 교육

정읍산림조합(조합장 장학수)에서는 지난달 30일 Green Wood 아카데미 교육을 30여명의 정읍시민과 여성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Green Wood 아카데미는 정읍시민과 정읍산림조합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산림경영기술지도 일련의 강좌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추진한다.

정읍산림조합 장학수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숲 관련 교양강좌는 정읍산림조합 자체 강사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숲, 조경수, 유실수 공기정화식물, 자생화,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산림경영기술에 관한 내용으로 강좌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대학교 최정란 교수의 '천연 화장품 만들기' 중 에센스 만들기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천연 화장품을 직접 만들었다.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교육을 통해서 천연화장품을 내 손으로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교육이 너무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며, 향후 심화교육도 수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영농자금 1조원 이자지원 전복농협, 농업인과 상생

새출발 농촌희망 저금리대출 출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상호금융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의 일환으로 금리상승기 영농자금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협중앙회가 최대 1.5%의 이자를 지원해 고객은 최저 연 2%에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새출발 농촌희망 저금리대출'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청년 창업농, 귀농인 및 농·축협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1인당 최대 5,000만원·3년 이내 기간으로 운전자금 용도 신규대출 및 기존 영농자금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새출발 농촌희망 저금리대출의 총 한도는 전국 1조원으로 최근 고금리 기조에 2만여 명의 농업인에게 약 450억 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이번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이 농업인들께서 금리상승기 생산비 부담을 덜고 영농에만 집중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금융 지원은 물론 농가 일손돕기,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등 다양한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농업인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상호금융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의 일환으로 금리상승기 영농자금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협중앙회가 최대 1.5%의 이자를 지원해 고객은 최저 연 2%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새출발 농촌희망 저금리대출'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행 여부 점검

전북 농관원, 9월 15일까지... 신규 필지 등 중점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북지원(원장 김민욱, 이하 농관원 전북지원)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를 7월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점검하며 특히 신규 필지, 전년지급면적 초과필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 조사된 88명을 활용해 실제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묘지·주차장·건축물 부지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은 면적을 신청하지 않도록 2,600여 명의 농업인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기본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먹거리안전, 영농활동 준수

표준양식이 배포됐으나 농업인이 기존 작성하던 양식과 방법도 인정된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농업인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북지역 공익직불금 예정신청 116명을 활용해 본격 시행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마을별 홍보 활동을 펼쳤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한 것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하며, 동일한 준수사항을 작년과 올해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하므로 농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윤상기자

K-푸드 신홍시장 공략 수출 다변화

aT, 재한 외국인 K-푸드 품평회·온라인 수출상담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신홍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온라인 세일즈 로드쇼'를 개최해 온라인 수출상담회 및 재한 외국인 K-Food 품평회를 진행했다.

공사는 지난달 28일과 30일 2회에 걸쳐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수출산도업체 45개사와 캐나다·멕시코·독일 등 신홍시장 7개국 바이어 48개사의 온라인 화상회의를 주선해 총 165건 상담, 1,44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한편, 29일에 진행된 재한 외국인 대상 K-Food 품평회는 수출산도업체 33개사의 제품을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품평단원 62명에게 사전 배송해 직접 맛을 보게 한 후, 온라인으로 실시한 품평을 듣고 해외 현지시장 공략에 도움이 될 유익한 의견들을 나눴다. 특히 품평단원 모집 당시 168명의 재한 외국인들이 몰려 K-Food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홍시장 진출에 동



참한 수출산도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수출 유망품목을 신홍시장 바이어들에게 알리고자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홍보·관측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에 힘쓰고 있다.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온라인 세일즈 로드쇼를 통해 코로나19로 신홍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수출기업들의 잠재력과 시장개척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신홍시장 진출을 돕고 K-Food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모피, 지금이 기회

롯데백 전주점, 내일부터 '진도모피' 패밀리 대전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김상호)은 역시즌 모피 대표 행사인 '진도모피 패밀리 대전'을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6층 점 행사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년에 단 한번 열리는 기회 행사로 열리는 가운데 진도 모피, 례베, 엘페브랜드가 참여해 최근 모피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유색 모피부터 최고가 상품인 '세이브모피'까지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코트, 재킷, 베스트 등 이월 제품을 정가가 대비 60%에서 최대 75%까지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역시즌 상품은 대부분 지난해 겨울철 판매 이후 남은 재고 상품으로 제조사와 유통사는 이월상품을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역시즌 모피 대표 행사인 '진도모피 패밀리 대전'을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6층 점 행사장에서 진행한다.

처리해 재고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값싼 제품을 대폭 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기간 동안 60/100/200/300/500/1000만원 이상 구매 시 7%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선착순 증정하고 구매금액에 따라 울 장갑, 찻머플러를 증정한다.

/김윤상기자

전북중기청, 중기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익산평화지구 공공분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익산평화지구 공공분양'은 1차한국토지주택공

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익산시 평화동 90·20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3세대(핵심추천 2세대, 예비추천 1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

상)인 근로자이다. 또한 입주자추천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한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북지역 거주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https://www.smes.gov.kr/snhaki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무주 푸른꿈고 학생 대상 JB인문학 강좌 열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후원으로 운영되는 (재)전북은행장학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1일 무주 푸른꿈고등학교에서 '2022 JB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KBS 22기 공채 개그맨 정범규씨가 '좋아하는 것만 해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개그 콘서트 코너 '11면', '독한 것들', '시바네 유치원', '에니얼' 등에 출연한 개그맨 정범규씨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과 현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풀어냈다.

또한 멜로디안 듣고 음악 맞추기 게임과 허몸어스(Among Us) 게임 캐릭터 색깔을 통한 심리 테스트를 진행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협의회

서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보 공유 및 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30일 '전남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협의회'를 추진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1년 우와기(2021.5 ~ 2022.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황 및 '22년 하반기 방제계획(공동방제구역 조정 방제방법 개선 등) 공유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이경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역협의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달성이 가능하도록 관계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